

# 열심히 일한 당신!

# 임금삭감이야!

25%를 무능력자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임금삭감하겠다는 것인가!

## “임금구조개선 없으면 임금삭감이야”

사측이 경영혁신, 비용구조개선, 생산성 향상하지 않으면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작년 임금동결하고 열심히 일한 대가가 임금삭감이란 말입니까!

## 무능력자는 조합원이 아니라 경영진이다.

성장동력도 못 찾으면서 주주들에게는 배당으로 알랑방귀, 독박은 오직 조합원에게만 덧씌우는 껌데기 경영진은 가라!!

## 2006년 당기순이익 9위! 조합원에게 줄 돈은 땀 한푼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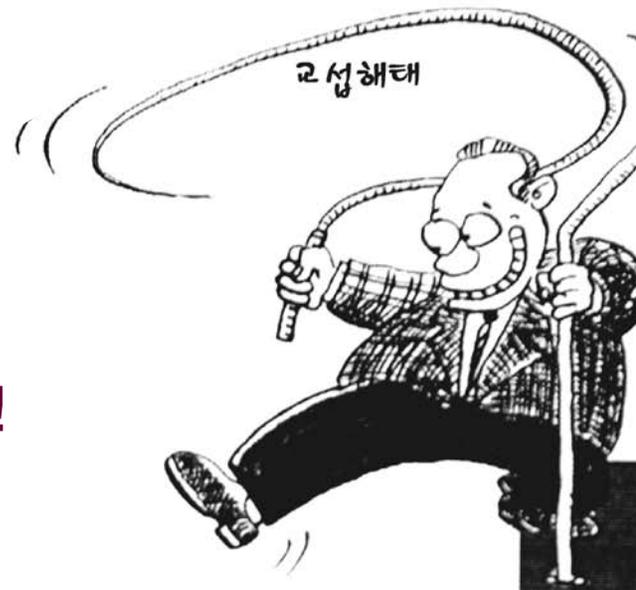
당기순이익이 주주들의 뚝이라는 경영진. 그 당기순이익 1조 2천억원이 직원들 화장지 안쓰고, 출장비도 못쓰고, 복사지 안쓰고, 긴급출동비까지 아껴가며 만들어낸 피와 땀이라는 걸 아시나!

## KT가 고임금이라고? 경쟁사는 천만원 더 받는다!!

매출액은 KT의 1/10인 LG데이콤의 평균급여는 6천 5백만원, 하나로통신의 평균급여 6천만원. LG데이콤·하나로통신은 통신환경이 좋아서 급여가 높단 말입니까.

## KT가 어려운 건 주주배당정책때문이다.

순이익의 50%를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KT. 주주배당정책 연간 6천억원! 그중에 4천억원은 외국인들에게 퍼주는 KT.  
KT가 어려운 건 임금이 많아서가 아니라 과도한 배당때문입니다.



사측의 불성실 교섭!  
조합원의 힘으로  
정면돌파한다!

# 투쟁을 준비 하자!!



## “직원들 임금동결 올해도 견딜만 할 거다”

사측은 10월 18일 본교섭에서 작년 임금동결했다고 더는 못참겠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올해도 임금동결이나 삭감을 해야한다는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사측이 조합원의 정서를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올해 임금인상하지 않으면 더는 못참겠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 “자기 일도 스스로 못하는 사람이 25%!”

태풍이라도 불면 수해복구에 밤낮없이 근무하고 고객민원에 ‘천삼뜨기, 별보기’하며 일했더니 이제는 무능력자 취급합니다. 그럼 고객만족경영대상 5년연속 수상, 초고속인터넷 민원율 최저1위, 국가 고객만족도 3년 연속 1위는 누가 달성한 것이겠습니까

## 능력없어서 늦게까지 근무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왜줘!

사측은 사무직근로자는 무정량 근로가 원칙이라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일과시간에 일을 집중해서 마친 사람은 일찍 퇴근하고 낮에 빈둥거리다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 휴일수당 받을 생각도 하지마

사측이 대체휴일을 도입해 일요일에 근무해도 휴일수당을 안주려고 합니다. 연차도 반납하는 마당에 대체휴일이라고 제대로 쉴 수나 있겠습니까?

아따! 거 계속 죽는소리 할 거요? 보자보자 하나까...

